

95.6.8

“시간부족으로 남편·아버지 구실 잘못해”

35살이하 직장남성 208명 조사·주 평균 56.4시간 근무

장년기 직장남성들은 긴 근로시간때문에 남편·아버지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9일 열릴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주제 가정복지세미나(서울시·한국가족학연구회 공동주최)에서 ‘장년기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을 발표할 연세대 이숙현 교수는 35살 이하 장년기 아버지 2백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56%가 주당 근무시간이 48~58시간에 이르는 등 평균 근로시간이 56.4시간으로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의 53%는 1주일에 1회이상 퇴근 뒤 비공식적인 모임을 갖고 있어 주중에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한 경우가 36.5%였으며, 2~3시간(22.6%) 1시간 미만(16.8%) 등으로 자녀와 집중적으로 놀아주거나 돌봐주는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가 70%나 됐다. 또한 이들은 부인에게 직장일을 거의 이야기 하지 않고 (45.2%) 있었으며 ‘좋은 일만 이야기한다’(20.2%)는 등 부부간 대화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남편 구실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44.

6%와 46.2%는 각각 ‘시간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경제적 능력 부족’을 든 경우도 각각 19.6%, 34.6%를 차지했다.

이 교수는 “일과 가족생활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고 균형을 이루려면 법정 근무시간 준수, 부모휴가 등 가족지향적 인사정책 도입, 사원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의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세미나는 9일 오후 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열리며, 중년기와 노년기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에 대해 한경혜 서울대 교수, 최혜경 이화여대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박정숙 기자